

손흥민, '판타지리그' 1위 등극

한국인 최초 EPL100호골 달성도

지난달 20일 사우스햄튼과 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4골, 지난 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골-1도움 등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이 프리미어 판타지리그(프리미어 공식 사이트에서 운영하며 선수를 사고 팔고 가치와 활약에 따라 점수 및 몸값을 늘리는 게임, 매주 프리미어리그의 선수들로 자신의 팀을 구성해 그 주중에 열린 시합의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도합하여 순위를 매긴다-편집자 주)에서도 최고의 선수에 올랐다. 손흥민은 6일 현재 EPL 득점 1위, 주간 파워랭킹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판타지 프리미어리그가 7일 공식 발표한 기록에 따르면, 손흥민은 1~4R 총 45점으로 2위 해리 케인(토트넘, 44점)에 앞서 단독 선두에 올랐다. 3위는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41점), 4위는 손흥민과 공동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칼버트-르윈(에버턴, 37점), 5위는 그릴리쉬(애스턴 빌라, 35점)다.



▲ 손흥민이 EPL 100호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타운뉴스DB

손흥민은 또 하나의 인상적인 부문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다. 바로 '방출(transfer-out)' 부문이다. 손흥민은 1~4R를 통틀어 모두 206만5,956명의 유저에게서 방출당했다. 2위인 티모 베르너(첼시, 201만2,888명)보다 5만 명이나 많은 수치로, 3위 오바메양(아스널, 169만348명)보다는 37만 명이 많다.

손흥민을 방출한 유저가 많은 것은 1R 토트넘의 부진, 3R 뉴캐슬전 부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손흥민이 판타지리그 최고의 선수에 오른 것은 그만큼 뽑은 사람도 많다는 뜻이다.

한편 맨유전에서 두 골을 추가한 손흥민은 한국인 최초로 유럽의 4대 빅리그(잉글랜드·스페인·이탈리아·독일) 정규리그(1부) 통산 100골을 기록하며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이 분데스리가 시절 기록했던 정규리그 98골을 넘어섰다.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1군 무대에 데뷔한 지 10년 만이다.

손흥민은 18세였던 2010년부터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6시즌 동안 41골, 2015년 EPL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지난 시즌까지 4시즌 160경기에서 53골을 넣었다. 올 시즌 리그 4번째 경기였던 이날 5·6호 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차범근(98골)을 넘어섰다.

손흥민은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등 클럽대항전이나 FA(축구협회)컵 등 각종 대회에서는 총 141골을 넣었다. 차 감독이 갖고 있던 아시아선수 유럽 최다골(121골)은 이미 지난해 11월 갱고, 이후 스스로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다.

손흥민은 영국 스카이스포츠가 6일 발표한 EPL 주간 파워랭킹에서 손흥민은 1만1천362점으로 362명의 선수 중 1위에 올랐다.

류현진, ML 최초 진기록 작성 관심

사이영상 양대리그 연속 2위 여부 주목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의 2020시즌은 끝났다. 토론토는 아메리칸리그와 월드카드 시리즈에서 탬파베이에 2패로 탈락했다.

7월 'OSEN'에 따르면 지난 겨울 토론토와 4년 8,000만 달러에 계약, 아메리칸리그이적 첫 해 류현진은 지난해 못지 않은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류현진은 코로나19로 인해 단축시즌으로 치러진 올해 12경기에 등판해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를 기록했다. 마지막 10경기에서는 9차레나 2실점 이하로 안정적이었다. 69이닝을 던지며 72개의 삼진을 잡고 17개의 볼넷을 허용했다. 류현진이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토론토는 9승 3패를 기록했다.

관심은 포스트시즌이 끝난 뒤 발표될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투표 결과에 모아지고 있다. 류현진은 지난해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활약으로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 2위에 올랐다.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은 12경기에서 8승 1패 평균자책점 1.63, 탈삼진 122개를 기록하며 다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세인 비버(클리블랜드)가 거의 확정적이다. 이어 과연 류현진이 2위에 오를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최근 올해 양대 리그 MVP, 사이영상, 신인왕을 예상했는데,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순위에서 류현진을 2위로 예측했다. 키스 로기자는 "토론토가 류현진과 4년 FA 계약을 한 것은 매우 영리한 결정이었다. 류현진은 계약 첫 시즌 아메리칸리그에



▲ 류현진이 연속해서 양대리그 사이영상 2위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타운뉴스DB

서 두 번째로 뛰어난 투수였다. 또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류현진 외에 경쟁자로는 뉴욕 양키스의 게릿 콜(7승 3패 평균자책점 2.84), 미네소타 트윈스의 마에다 겐타(6승 1패 평균자책점 2.70),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델러스 카이클(6승 2패 평균자책점 1.99),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크리스 배시(5승 2패 평균자책점 2.29) 등이 있다.

류현진의 베이스볼레퍼런스 WAR 3.0으로 아메리칸리그 투수들 중 2위였고, 팬그래프 WAR 1.9는 아메리칸리그 투수들 중에서 8위였다.

류현진이 키스로 기자의 예상처럼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2위에 오른다면 대단한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사이영상이 제정된 이후 양대리그를 번갈아 2년 연속으로 사이영상 2위를 차지한 기록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최초 진기록에 도전한다.

주정부 면허회사
CA Lic #:1051205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전문

부엌 화장실 수영장 리모델링 조경 & 페이버 공사 전문

전기/플러머/타일 25년 이상 풍부한 경험!!! 최고의 기술력 & 정직한 회사

Pine Tree Construction 714.345.8768

36 Discovery #100
Irvine, CA 92820